

숨은 광장 :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의 거품, 소음, 응성거림

발제_김현주
A.C.클리나멘, 비비보관소



김현주
Hyunjoo Kim

예술프로젝트 전시 및 교육을 기획하는 문화예술기획자이자 미술작가다. 미술작가 조광희와 함께 비비보관소와 예술공간 송산반점을 운영한다. 예술과 장소, 예술가와 지역민들을 연결하여 도시화, 자본화 되어가는 소비 중심의 사회에서 보다 인간다운 놀이, 삶을 사색하는 '예술하는 영토'로 확장하려 애쓴다. 미군기지가 지역의 땅과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예술작품을 통한 인식 전환 및 항구적 미군기지화, 항구적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예술적 거품을 궁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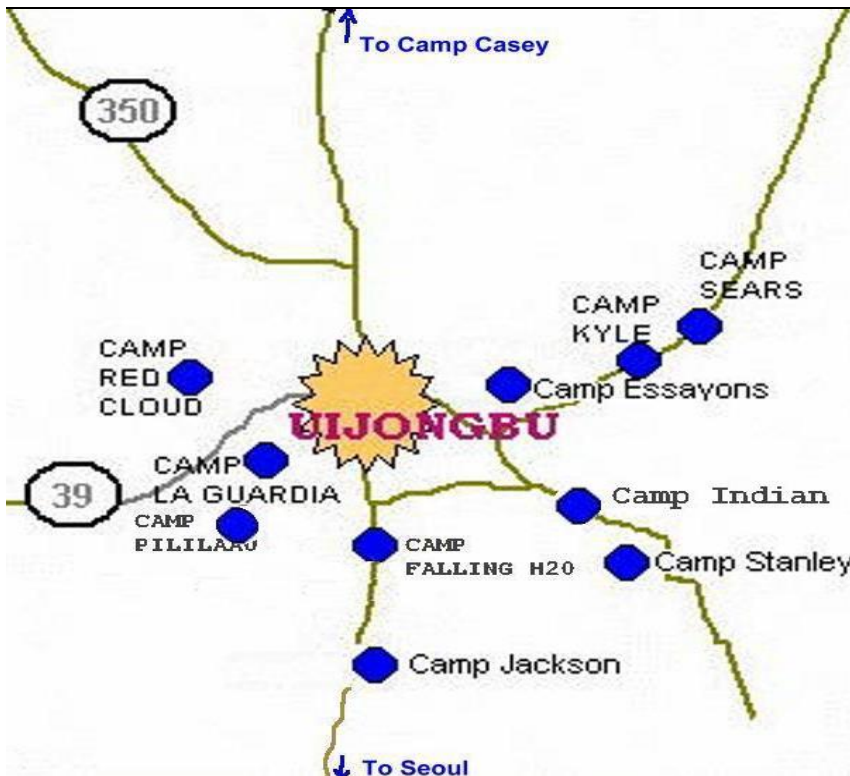
<기억 향해> 오디오 투어 기반 이동식 퍼포먼스_빼빼 마을 내 폐쇄된 클럽 내부 공간_2023



'여기가 뽕밭.'

마을에서 대보름 되면
뽕대를 모아 내 나이만큼 엮어
그리고 달님한테 소원 비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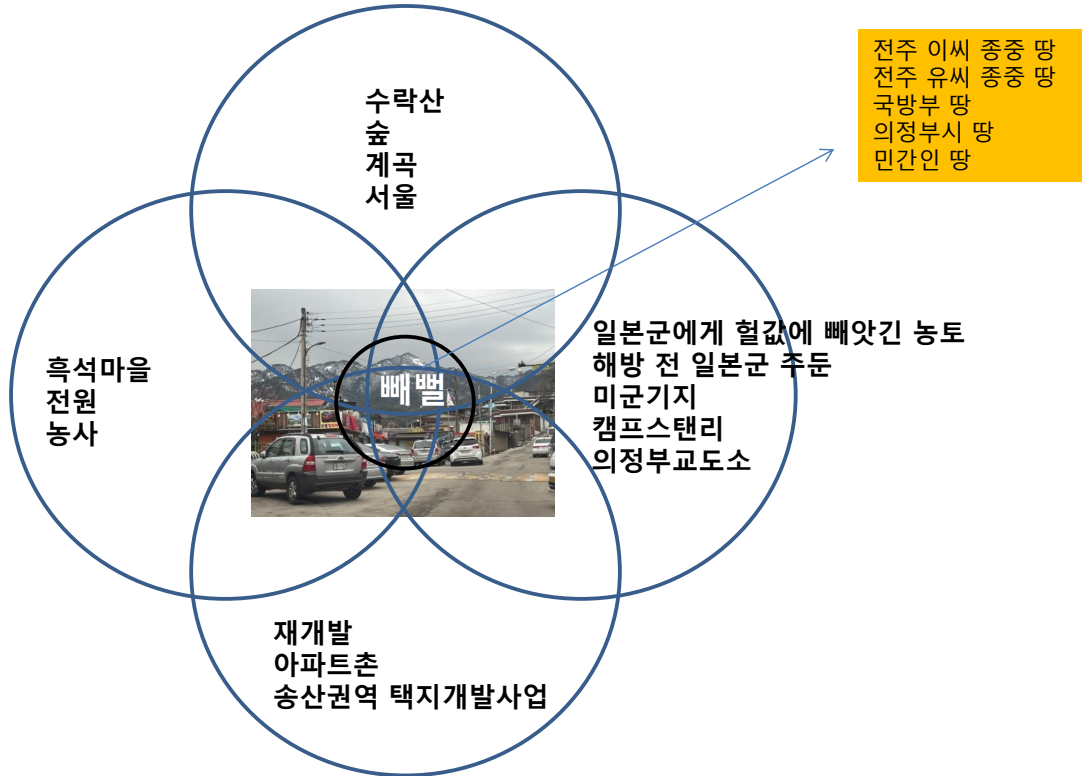
'타닥타닥 씨앗이 들어 있어서
다른 풀보다 태우기 시작하면
태우는 소리가 아주 경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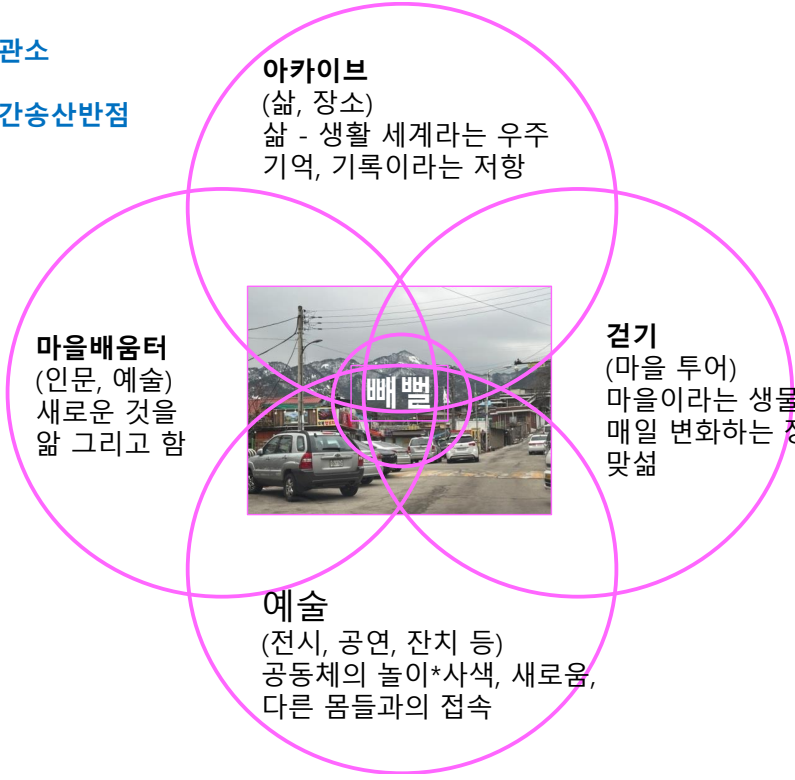
미국은 전 세계 약 70개국에 걸쳐 8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보유.
2022년 기준 일본 120개, 독일 119개, 한국인 73개 순으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일본에 있으며, 이 중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전체 일본 미군기지의 75%를 차지.

@Hyunjoo Kim x Kwanghee Cho

송산로
 999번길
 .
 1번 버스
 .
 999+1
 .
 뺨뺨



배배 보관소
X
예술공간송산반점



예술을 통한
이름, 사건, 연대
응성거림, 소문, 변화

같은 다른 것
혹은
다른 같은 것
만을 추구하는
세계의 질서
-라는
경계, 울타리 넘기며
나와 세계를 잇기,
질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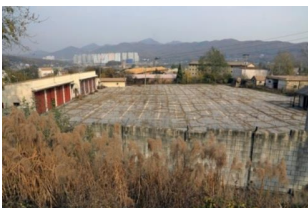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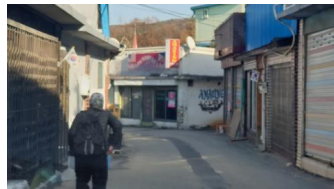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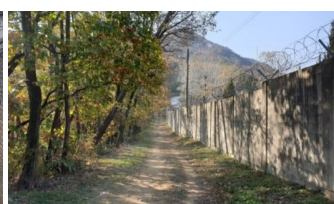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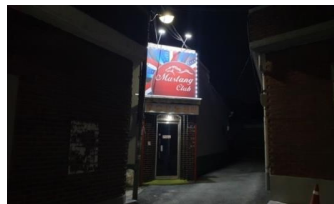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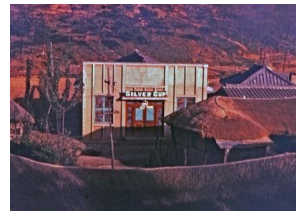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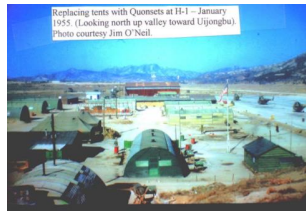
기억공동체, 서사공동체로서의 배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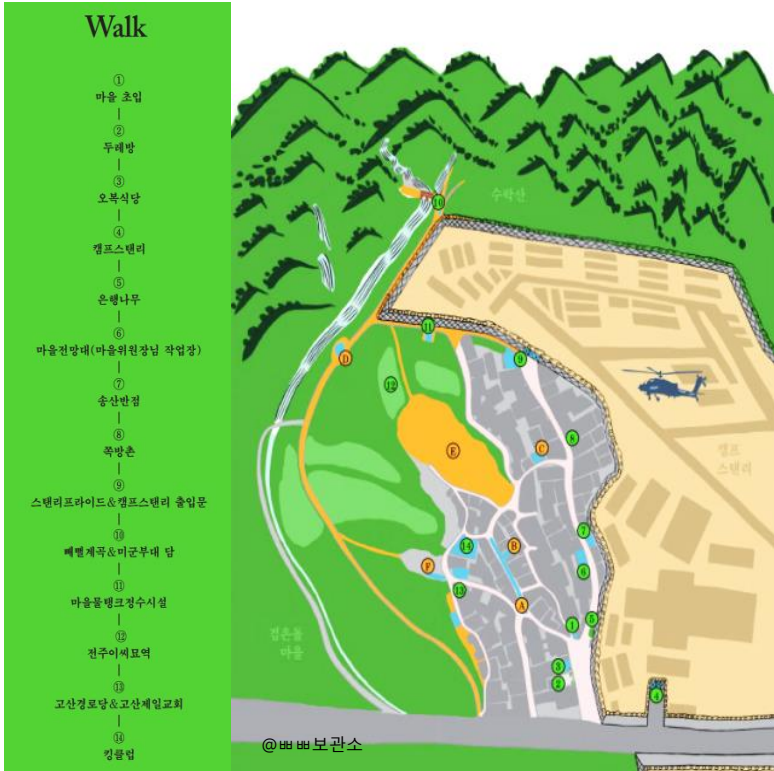


배배 프로젝트 On going Ppaepaerl Project _ 포토콜라주, 잉크젯 프린트 65x160_2021_김현주



Camp Stanley Tent City 1954





걷기
_숨은 광장으로의 초대



2019_뽀뽀주름_'Walk'@뽀뽀보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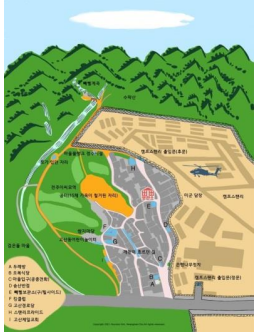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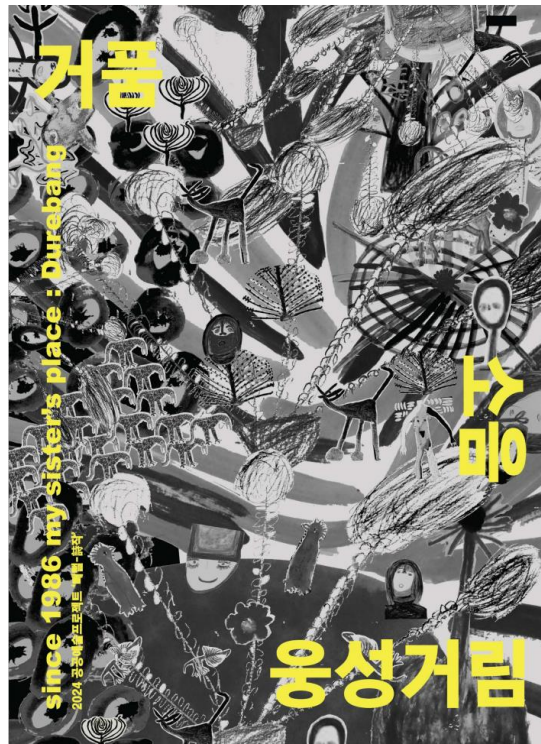
Ppaeppeori

Kim Heung-geum
Kwon Jaeng-ah
Lee Seung-yeon
Yi Soong-ah
Park Kwang-gil
Yi Eunmi
Jung Do-yeung
Jung Mi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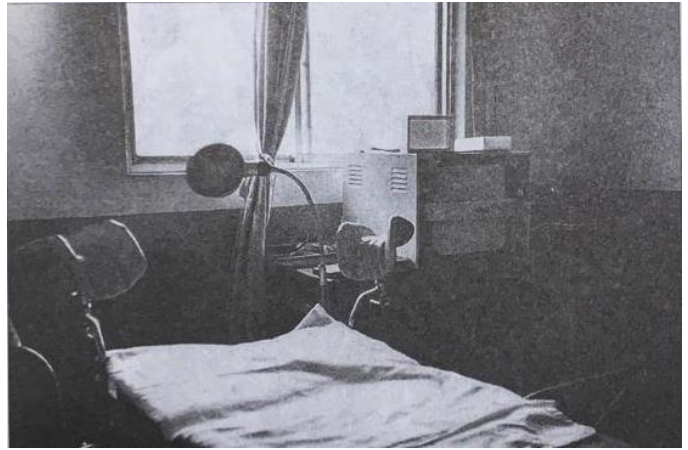
Choi Hee-soon
Hwang Jae-young
Jung Seok-yeon
Yoo Young-min
Yoon Seon-min
Kim Min-yeon
Kim Min-yeon
Kim Min-yeon
Jung Do-yeung

1. 김희준
2. 김희준
3. 김희준
4. 김희준
5. 김희준
6. 김희준
7. 김희준
8. 김희준
9. 김희준
10. 김희준

낭독의 방 -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_2020-2021



두레방은 1986년 기지촌 여성의 자활을 돕는 단체로 의정부 CRC 에 인접하여 개소한 후, 1987년 빼빼 마을로 이주. 초기에는 초기 마을 안쪽에 위치한 자치포주가 운영하던 민가건물에서 상담소와 기지촌 아이들을 돌보는 놀이방, 공부방을 운영해 오다가 1997년대 이후 고산성병진료소 공간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진료소와 공존. 2000년대 진료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건물 전체를 의정부시로부터 임대하여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



구. 의정부시고산성병진료소 _ 현재 두레방이 위치해 있는 옛 진료소의 모습
출처_<동맹 속의 섹스> _ 캐서린 H.S. 문

...진 떨어지던 우리가 2층에서 일했다. 두층짜리. 거기서 중
 ...은 애들이 이불을 뜯어 가지고 2층 옥상에 올라가서 국기 췌
 ...양기에 이불깎데기를 묶고 타고 내려가 도망을 간 거야. 한 시
 ...잠만 숙직하는 사람이 있어. 숙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잠이
 ...들었던가 봐. 그다음부터는 송산동 여자들 검진을 안 해준다고
 ...간리를 쳐 갔고 그때부터 이리로 오게 된 거야. 월요일 하고
 ...요일. 일주일에 두 번 검진을 하다가. 베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쿵알 먹은애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 다
 ...부터는 막 송산 여자들 검진 안해 준다고. 이 동네가 비디 빌
 ...이라고. 병 있는 여자들. 내가 1968년에 베벨에 왔는데 그 전
 ...이 있었어. 이 건물이. 여기가 2층이었어. 여기 올라가는 계단
 ...이 있었어. 계단 올라가면 2층에 어떤 할머니가 커다란 강아지
 ...를 데리고 살았었어. 1층에 방도 하나 있었고. 여기가 원래 양
 ...장점이야. 대지 의상실이라고. 대지가 아니라 돼지. 돼지 의상
 ...실이야. 꿀꿀돼지. 여기 간판이 있었지. 나중에 저기 미장원쪽
 ...으로 옮겨졌지. 돼지 의상실이라고. 여기서 떨어지면 도립병원
 ...층으로 가고 그랬지. 나도 몇 번 갔었지. 의사들이 와서 검진
 ...이 여기서 받는 곳이고. 여기서 검진하는 애 올라가는 곳



나물 할머니, 신기루, 아카이브
2-ch 비디오, 45min_가변설지_2024



인터뷰이 | 유영남 (두레방 전 회장님)
 두레방 활동가_박수미,
 페페, 장보윤, 최선영

인터뷰 | 김현주
 영상촬영 및 편집 | 조광희
 구성채록 및 편집 | 김현주
 인터뷰일 | 2024.04.04 ~ 05.23
 인터뷰 장소 | 두레방 회의실

아카이브 I. meet my sister's place_사람

|| 배배보관소

아카이브 I. <meet my sister's place> _사람>은 21년간 두레방 회장님이셨던 유영남 선생님과 만남을 시작으로 현재 두레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분의 활동가들의 두레방 이야기를 경험하는 활동이다. 1986년 두레방의 건립부터 2024년 마을재생사업에 의한 존치 위기까지 37년간 땀과마음에서 지속해온 두레방의 보이지 않았던 서사들은 그 자체로 한국의 가치존여정운동을 인식하게 한다.

Since 1986 my sister's place : 두레방

since 1986 my sister's place : 두레방

- 1986** 10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5번지 마을공동체 '두레방'이 건립된다. 유영남, 박수미, 페페, 장보윤, 최선영 등 10여 명이 모여 '두레방'을 설립한다.
- 1987**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첫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88**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두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89**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세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0**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네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1**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다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2**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여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3**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일곱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4**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여덟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5**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아홉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6**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7**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일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8**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두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1999**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셋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0**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넷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1**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다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2**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여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3**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셋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4**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넷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5**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다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6**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여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7**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셋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8**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넷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09**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다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10**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여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011**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셋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1986년부터 시작된 한국 최초의 기지촌여성운동

- 두레방의 서사를 통해 사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2012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일곱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3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여덟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4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셋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5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넷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6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다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7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여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8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셋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19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넷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20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다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21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여섯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22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셋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23 '두레방'은 마을공동체로서 열넷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두레방 3대 원장님이신 유영님 선생님을 시작으로
두레방 활동가 인터뷰 진행_2024

Since 1986 my sister's place : 두레방

21년간의 두레방 여정:
'인생이 놓아버리는 거잖아. 진정성이 없으면.'

인터뷰이 | 유영님 (두레방 전 원장님)



전 두레방이 위치한 용산에 '두레방' 개관_2003.07

두레방 - 섬, 터
인터뷰이 | 박수미 (두레방 활동가)



두레방도 있고 와서 활동하는 여자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두레방'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박수미_두레방 기지촌 여성활동가_인터뷰 장면_2024.04

나와 두레방 그리고 기지촌 여성
인터뷰이 | 페페 (두레방 활동가)



인간에게도, 두레방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들에게도 '두레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페페_두레방 기지촌 여성활동가_인터뷰 장면_2024.04



나와 두레방

두레방은 어떤 곳인가,
나는 이곳에서 무얼 하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만난 기지촌 여성들의 삶
인터뷰이 | 장보윤 (두레방 활동가)



많은 여성이, 기지촌에서 남장군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구적인 삶을 이루고 그런 영구적인 것을 장보윤_두레방 기지촌 여성활동가_인터뷰 장면_2024.04

두레방에서의 3개월
인터뷰이 | 최선영 (두레방 활동가)



활동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알게 되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영_두레방 기지촌 여성활동가_인터뷰 장면_2024.04

사진촬영 | 조광희
이미지 편집 & 텍스트 | 김현주
아카이브 기간 | 2024.03.08 ~ 04.29
촬영 장소 | 두레방 회의실

아카이브 II.
meet my sister's place
언니들의 그림

| **배 배 보관소**

아카이브 II. <meet my sister's place. 언니들의 그림>은 두레방에 남겨진 여성들의 그림들을 만나고 펼치는 일이다. 남겨진 원화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너도 및 작자 등을 파악 후 데이터화 하였다. 1998-2012년까지 사이에 그려진 약 1,000여점의 그림들을 연대별로 정리하였으며, 아카이브 그림 중 일부를 <거품, 소음, 음성거림> 프로젝트展에 전시하였다.



박인순_까마귀 까지 부엉이가 사는 나무_2002.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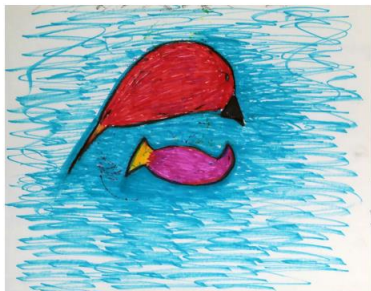


착자미상_명성이02_2003.10.01

96



김태정, 박인순_2011.03.22
 기지촌여성활동가 김태정님이 당시 박인순님과 미술치료 워크숍에 참여하여 그린 그림



김인순_엄마 물고기와 아기 물고기_2011.01.22



박인순_새가 가진 독나비_2013.06.12



박인순_제 목미상_년도미상



박인순_배고픈 임신한 새_2013.06.12



박인순_년도미상



박인순_년도미상



<언니들의 그림>_Since 1986 my sister's place : Durebang '거품 소음 응성거림' 프로젝트 전시 풍경_ 예술공간 송산반점 2024
1998-2012년까지 사이에 그려진 1,000여점의 그림들을 년대별 정리

오르남의퍼포먼스

**'En el Centro
중심에서' : 모든 거품,
모든 응성거림들의
댄스**

장소 | 두레방
피포머 | 솔몬나
플래쉬 업 퍼포머 | 김기영, 조주일, 조아영,
박도연, 박연경, 정새롬,
남가영, 아침, 홍윤경, 오지후
음향 | 임창재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전통춤이다. 발을 구르고 손뼉을 부딪혀 소리의 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집시들의 출이기도 한 플라멩코는 수시로 변하는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센 그들의 정신이기도 하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몸의 울림을 통해 풀어나간다.



놀이를 통한
연대의 지속과 변곡점
만들기
/
전환과 확산의 몸짓



'En el Centro중심에서'_관객참여 퍼포먼스_솔몬나 2024

오르남퍼포먼스

'솟은 구멍, 숨은 거품' : 보글보글 목소리와 움직임들

장소 | 두레방
퍼포머 | 조제인
협력 퍼포머 | 김솔
음향 | 임장재



두 발을 하늘로 올려 거꾸로 솟아 보려 애쓰는 구멍이 있다. 과연 구멍의 이야기가 빠른 계곡에 숨은 거품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보글보글 새어 나와 숨을 보태줄 거품이 나타나길 기다려 본다.



'솟은 구멍, 숨은 거품' 퍼포먼스_조제인 2024

놀이를 통한
연대의 지속과
변곡점 만들기
/
전환과 확산의
몸짓



오르남퍼포먼스

'뒤를 돌아라, 땅을 짚어라, 만세를 불러라!' : 경계 넘기 퍼포먼스

장소 | 두레방
출몰리기 | 김현주, 김태정
놀이감 선물 | 고무신 조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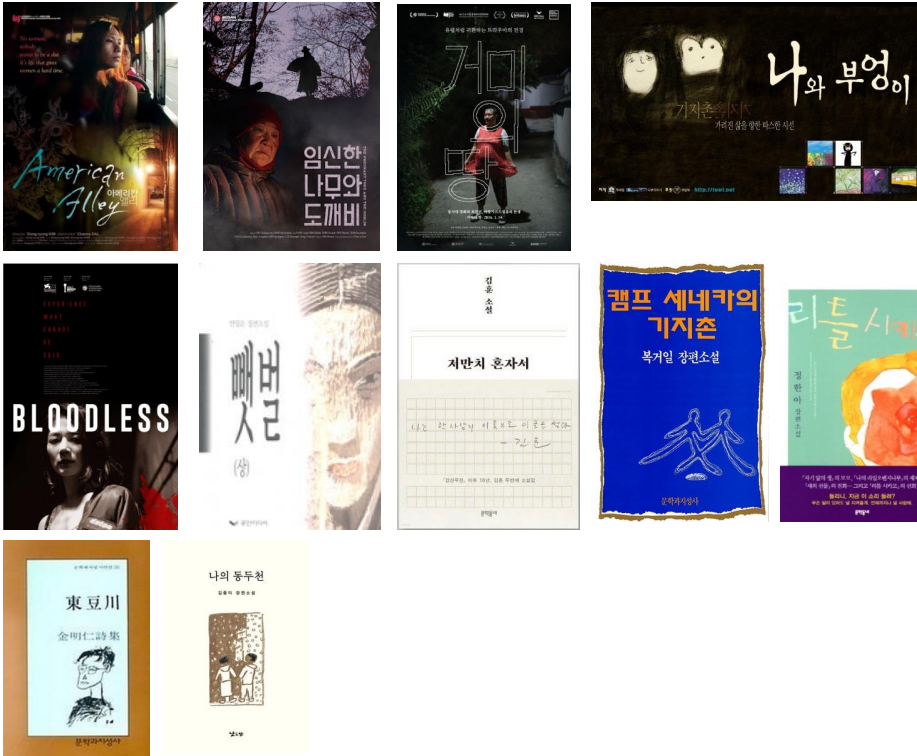
선을 넘자, 선을 넘으며 뒤를 돌아보자. 걸지만 말고 땅도 짚어보자. 하늘을 향해 만세를 부르며 모르는 이들에게 손을 뻗어보자. 그다음 '선을 넘어 잘 가거라!'



'뒤를 돌아라, 땅을 짚어라, 만세를 불러라' 관객참여 놀이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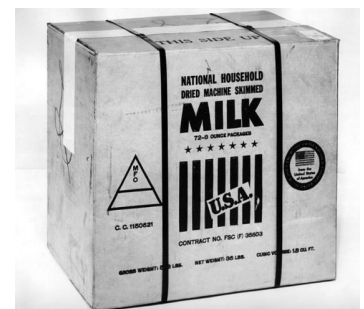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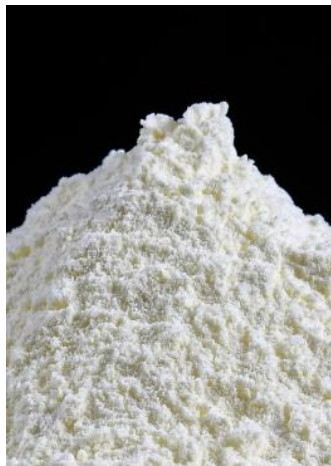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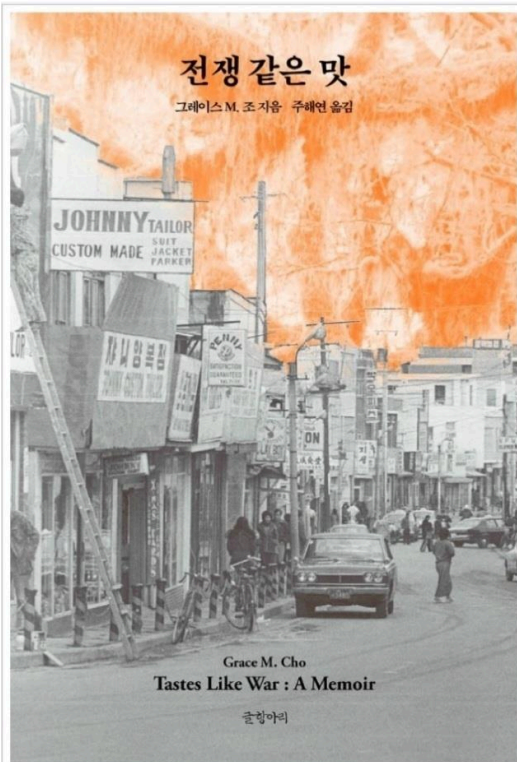


놀이를 통한
연대의 지속과
변곡점 만들기
/
전환과 확산의
몸짓



동두천의 마지막 나룻배 이야기
 '아리랑 다리' _1964
 나와 부엉이_ 박경태 2003
 있다 There is _ 박경태 2006
 아메리칸 엘리_김동령 2008
 거미의 땅_ 김동령, 박경태 2012
 동두천 Bloodless 김진아 2017
 신한 나무와 도깨비_김동령, 박경태 2019
 소요산 tearless_김진아 2021
 아메리칸 타운_김진아 2023

뱃별_안일순
 저만치 혼자서_김훈
 캠프 세네카의 기지촌_북거일
 동두천(시집)_김명인
 동두천 아리랑(시집)_손순자
 나의 동두천_김종미
 리틀시카고 장한아





어르신들의 소비 놀이터 - 소요산이 전세대의 문화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사키마 미술관 _ 2024



오키나와 전통식 귀갑형묘_ 2024

‘사키마 미술관 - 전쟁의 참상을 사색하는 곳’

사키마 미술관은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후텐마 미군기지화 인접해 있다. 1994년 11월에 개관한 이곳은 미술관 관장인 사키마 미치오에 의해 만들어졌다. 본래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었으나 미군기지화 되었었고 이후 토지 일부를 반환 받게 된 땅 위에 미술관을 짓게 되기까지의 서사는 많은 것들을 사색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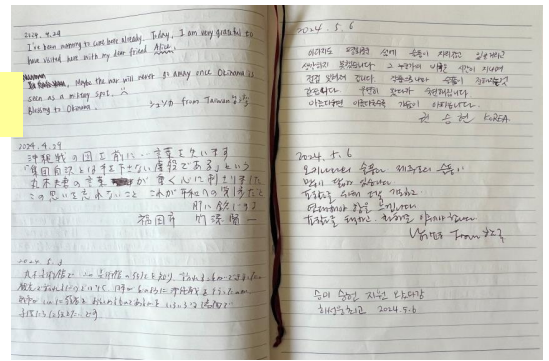
사적 소유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 미군기지 바로 곁에 미술관을 만들어 잊혀진 전쟁을 현재화하여 감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일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스스로 해내고 있는 것 등 미술관에 담긴 가치들이 고유한 장소성으로 각인되면서 ‘얌’이 아닌 ‘함’으로써 지켜내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곱씹게 된다.



사키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키나와전>



사키마 미술관 풍경 2024



이들이 지켜내고 싶은 평화는 기지화된 땅의 현실에 무력해지거나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 온전히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억하며 대응하는 것. 사키마 미술관의 평화에 대한 바람과 예술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경계가 삼엄한 땅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경계 없는 예술공간이 지어진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다. 미술관은 예술작품을 통해 과거 전쟁의 극악무도함과 비통한 죽음들을 기억하며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땅 오키나와와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사키마미술관 건축물

오키나와 전투가 끝난 6월 23일을 6개, 23개의 계단으로 조형화 옥상 위로 올라가면 후텐마 미군기지가 내려다보임